

장소기억을 통한 문화경관의 층위 해석

- 형용사를 사용하여 -

박재민* · 김무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An Interpretation of the Cultural Landscape by Using Adjectives on Place Memory of Local People

Park, Jaemin* · Kim, Moohan**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nterprets the hidden structure, layers and figures into cultural landscape, invisible landscape, by using landscape adjectives based on Place Memory of locals. Methods for obtaining local landscape information are through semi-standardized interview and autobiographical questionnaires. As a research site, Janghang in Korea which have experienced not only colonized and autonomous industrialization but also de-industrialization is a typical modern industrial landscape even in Asia. Thus, the landscape is interpreted as layered images like a stratum and as a dynamic landscape that changes over time. People only remember selected memories such as regional and national images affected from industrial developing paradigm in Korea. Some images of the landscape are distorted by powers and influenced by places of memory. This study brings us some discussions that ‘What do we look at and remember about the landscape?’

Key Words: Janghang, Modern, Industrial Heritage, Colonization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구인 장소기억과 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의 숨겨진 구조와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표준화 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산업화 시기를 거쳐 탈산업화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근대 산업도시 장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관은 정지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장항의 경우 산업화, 한국전쟁과 탈산업화에 의해 크게 구분되었고 그 속에는 수많은 기억의 층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소수자와 개인의 집단기억은 사라지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상징하는 이미지만이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경관 이미지는 왜곡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소에 관한 계보를 통해 그 위치와 이유를 밝혀낼 수 있었다.

Corresponding author: Mooha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10-4752-3438, Fax: +82-883-8620, E-mail: moohan@naver.com

본 연구는 기억을 통한 경관 읽기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형용사를 사용하여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경관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였으며, 경관의 생산자인 설계자와 계획가로서 또 다른 왜곡된 기억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장항, 근대, 산업유산, 식민지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 풍경식 회화와 정원에서 영향을 받은 Sauer(1925)와 Schlüter(1906)는 문화경관 개념을 제시하였고, 눈 앞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과 이미지를 연구하는 경관형태학(morphology)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경관형태학의 연구는 주로 가시적 경관에 한정됨으로써 그 이면에 담겨진 내재적 의미, 상호침투성, 동적인 경관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Cosgrove, 1984; Hong, 2009; Yoon, 2009; Hwang, 2011). 이후 문화경관 이론은 사회이론과 결합하며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Cosgrove는 경관을 상징화된 문화적 이미지라고 정의하며 바라보는 방식(way of seeing)으로 설명하였고, 이후 경관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등장하며, 텍스트경관(landscape as text), 상징경관(iconography), 문화정치(landscape as politic) 등으로 발전하였다(Cosgrove, 1985; Cosgrove and Daniels, 1989; Duncan, 1988; Yeoh, 1992; Jin, 2005). 최근에는 집단기억, 계보학과 구조이론에 영향을 받은 장소기억 개념이 등장하며, 기억 속에 투영된 문화적 이미지를 통해 지층화된 경관의 특징과 구조를 해석하는 연구로 발전되었다(Park, 2013a; Jeon, 2009; Schama, 1995; Bender, 2002; Taylor, 2008). 하지만 이러한 경관 이론의 발전 속에서도,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경관 이면에 담겨진 상징화된 문화적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형용사는 보이지 않는 경관의 의미와 특성을 밝히는데 효과적인 방법(method) 중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다(Joo and Im,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기억 속에 투영되어 있던 장소기억을 인터뷰로 추출한 후, 대상과 현상을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형용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관(dynamic landscape)의 특성과 경관의 층위(layered landscape)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는 도시 경관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듯이 정지되어 고정된 아름다운(beauty) 이미지만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일상적 이미지(vernacular landscape)임을 살피고, 우리가 인식한 경관은 하나의 이미지가 아닌 지층(strata)과 같이 수많은 층위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장소기억 속 층위의 구조를 살필으로써, 우리가 당연시하며 인식하고 있는 경

관 이미지의 일부는 사실 어떤 이유와 힘(power)에 의해 왜곡되거나 변형되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1) 문화경관 이론의 발전과 장소기억 개념의 등장

문화경관 이론의 발전과정 속에서 최근 장소기억은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소기억은 Halbwachs(1941)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 Assmann(1992)의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그리고 최근 프랑스 역사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Nora(1884~1992)의 기억의 장소(memory in site)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장소기억에 대한 인식은 그 이전인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장소기억법(The method of loci)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특히 Cicero는 그의 저서 '수사학'에서 장소에는 축적된 기억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여, 장소를 통해 어떤 기억(감정과 이미지)을 끌어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Park(2013b)은 장소기억을 Figure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장소기억이란 장소에 남아있는 기억을 의미하며, 이는 '장소에 남겨진 물리적 흔적과 아우라', '장소에 관한 집단기억' 그리고 기억의 재현체인 '기념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2013b). 예를 들어, '파르테논', 익산 '미륵사지 터'라는 특정 장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정신적인 힘과 아우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마을숲', '정자목', '소금창고' 등의 장소 주변 지역민과 노동자의 구술을 통해 과거의 경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반면, 정치가, 정책가와 디자이너들은 상징화된 과거의 일부 기억을 선택하여 기념물이나 가로, 광장 등으로 재현하곤 한다. 하지만 각각의 장소기억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영향을 주며, 함께 작동하며 변화하는 유기적 시스템(system)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현된 기념물은 다시 장소의 흔적으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은 기억의 일부는 기념물로 남게 된다.

이중 지역주민의 집단기억 속에 담겨진 장소에 관한 기억은 주체의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자와 외부자로 구분되며, 특히 한 장소에 거주하며 경관을 생산하고 소비한 주체인 실존적 내부자의 경우, 대상 경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거주하는 내부자의 경우, 실존적 내부자만큼의 직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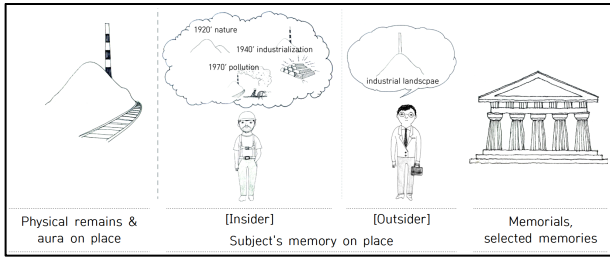


Figure 1. Category of Place memory (Park, 2013b)

*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subject's memory

경험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살아가며 간접적 경험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많은 경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실존적 내부자에 비해서 상징적이며 일반화되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경관을 설명하는 특징을 보인다.

2) 형용사를 이용한 문화경관 연구

형용사는 일상 속 경관의 특징과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Im and Shin(1996)은 경관영향평가를 위한 형용사를 선정하였고, Joo and Im(2003)은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형용사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Ban *et al.*(2012)은 경관 유형 및 공간 유형별로 형용사 목록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농촌경관 평가를 위한 형용사 목록을 작성하였고, Jung and Byeon(2005)은 형용사를 사용하여 도시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외 Kwon *et al.*(2011)은 형용사 설문조사에서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구분하여 진행함으로써, 주체의 위치에 따른 경관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형용사 목록을 사용한 설문을 이용한 연구와 달리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굉장한', '발전한', '배고픈' 등 구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형용사만이 아닌 '좋은', '괜찮은' 등과 같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용사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의 특성(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을 이용하여 전후 구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형용사가 지시하고 설명하는 경관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II. 연구의 방법

1. 대상지

1) 근대 산업도시 '장항'

연구대상지인 장항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Figure 2 참조), 면적은 18.8km², 인구는 13,481명(Janghang-eup, 2010)으로, 일제강점기 충청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미곡 수탈과 반출, 군사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된 근대 초



Figure 2. This figure shows the boundary of Janghang

기 한국의 대표적 근대 산업도시이다. 1920년대 토지매립을 시작으로 1931년 경남철도의 부설, 1932년 장항항 개항, 1936년 장항제련소가 완공되며, 산업도시로의 면모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1940년대 초 제국주의 일본 세력이 약화되며, 제련소 등의 산업시설 가동이 줄어들며, 방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을 경험하며, 장항은 산업화에 대한 기억 대신 전쟁의 기억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전후, 1950년대 UN의 지원을 받아 장항제련소가 재가동되었고, 장항항을 통해 식량원조가 이루어지며, 다시 산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장항은 1960~80년대 한국 근대 산업화의 상징으로, 사회교과서의 표지, 관광지와 영화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고, 산업구조 변화와 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80년대를 정점으로 장항은 급속히 쇠퇴하였다. 장항의 산업화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식민지 산업화(1920~1940년대), 해방과 한국전쟁(1950~1953년), 자생적 산업화(1950~1980년대)와 탈산업화(1980년대 이후)로 나눌 수 있다(Park and Sung, 2012b; Janghang-eup, 1997). 장항은 식민지 산업화, 자생적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경험한 한국은 물론, 근대 아시아의 대표적 근대 산업도시이며, 산업경관이라 할 수 있다.

2) 문화경관으로서의 산업경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경관 개념과 이론은 독일의 Schlüter, 특히 미국의 Sauer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문화경관 개념은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지칭하기보다는, 인류의 문화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이미지를 뜻하게 되었다(Cosgrove, 1984; UNESCO, 2005). 반면, 산업경관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 Rix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영국 내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방치되거나 버려진 방직공장과 창고 등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Park and Sung, 2012a). 국내에는 2000년대 전후 관련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조경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 논의에서 시작되어 포천 아트밸리(폐석산), 안양 삼덕공원(공장), 폐철로 공원화 등을 중심으로 공원화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문화경관과 산업경관은 동등한 위계가 아닌 문화경관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경관이란 산업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경관의 한 부분인 것이다. 실제 세계문화유산의 유형에서 문화경관의 대표적 하위분류에 산업유산과 정원유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경관 이론 속에서 문화경관을 바라보는(way of seeing) 새로운 시선인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한 것이며, 그 구체적 연구 대상으로서 한국의 대표적 근대 산업경관인 '장항'을 다룬 것이다.

2. 인터뷰 및 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 과정을 통해 추출된 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의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9회 진행하였다(Table 1 참조). 인터뷰 대상자는 과거 산업화를 경험한 지역주민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비록 장항에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들의 추천에 따라, 장항에서 과거 일을 했던 인근지역(서천읍) 주민 2인¹⁾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 적절한 정보제공자의 선정, 2) 자료의 삼각화, 3) 대화에 의한 타당성 확인, 4) 연구절차의 신뢰성 확보, 5) 연구와 관련 없는 동료의 의견 듣기(peer debriefing) 과정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중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눈덩이 굴리기 표집(snowball sampling)과 각 면별 주요 커뮤니티 공간을 방문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공무원과 지역 리더를 접촉하여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점차 확장하였으며, 주요 커뮤니티 공간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노인정, 부동산, 마을정자 등을 방문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특이점은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추천되는 인터뷰 대상자는 일정한 패턴으로 수렴하여 순환구조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반표준화 인터뷰²⁾로 진행하였고, 질문은 생애사적 관점에서 유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시간적 범위를 구분하였으며, 노동, 교육, 상업, 여가 등의 일상생활로 구분하여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이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함에 있어 의미기억과 일화기억을 중심으로 기억하며, 이는 개인의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으로 회상될 수 있다는 인지과학 이론에 기초하였다(Tulving, 1999; Squire, 1992; Heath, 2005).

인터뷰 대상자의 연령은 대부분 50~80대였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직업의 경우, 산업노동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부분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기 보다는 2~3가지 직업에

Table 1. Demographics

	No.	Rate(%)	
Age	30's	1 ⁴⁾	2
	40's	2	4
	50's	5	11
	60's	9	20
	70's	12	27
	80's	14	31
	90's	2	4
Gender	Male	40	89
	Female	5	11
Job	Industrial worker	18	40
	Officer clerk	3	7
	Public official	8	18
	Farmer & fisherman	6	13
	Business man	5	11
	Housewife	5	11
	Non-resident	2	6
Residence period	Nonresidence	2	6
	31~40 years	5	11
	41~50 years	5	11
	51~60 years	3	7
	61~70 years	11	24
	71~80 years	7	16
+ 80 years	10	22	
Total	45	100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기간은 대부분 30년 이상이었으며, 8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도 10명이 포함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취하고 코딩하여 문서화 하였고, KrKwic³⁾를 사용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 Microsoft Excel 2007을 사용하여 언급된 단어 중 형용사만을 추출하였다. 단어 중 유사한 단어는 통합하였고,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표현이거나 여러 의미가 중복되어 해석이 어려운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경관이미지의 시기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Park, 2007; Park, 2012b)의 산업화시기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4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시기별로 변화하는 산업경관

연구 결과, 인터뷰 대상자들은 장항을 설명함에 있어 총 23,252개의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장항 근대 산업경관에 관해 총 401개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복된 용어를 제외하면 총

96개의 형용사를 언급하고 있었다(Table 2 참조). 이중 일반적 표현이며 설명함에 있어 경관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much(많은)', 'like(같은)', 'inferior(못한)', 'big(크다)' 등은 제외하였고,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칭하는 'childish(어린)' 또한 경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외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자생적 산업화 시기에 가장 많은 형용사가 등장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와 80년대 이후 탈산업화 시기에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시기의 경우, 비교적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며, 80년대 이후의 경우는 산업화가 쇠퇴하며, 지역성이 약화되면서 산업경관에 대한 인식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반면, 구술한 형용사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대해서 장항 지역주민들은 'good(좋은)', 'developed(발전한)', 'prosperous(번성한)', 'famous(유명한)', 'flourishing(번창한)', 'vibrant(활기찬)', 'vigorous(활발한)', 'sunny(화창한)' 등이 많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당시 산업이 활성화되며 발전하던 모습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 외, 'marvelous(굉장한)', 'tremendous(엄청난)', 'only(유일한)', 'gorgeous(멋진)'과 'high(높은)', 'wide(넓은)', 'straight(반듯한)'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장항 산업경관의 시각적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었다. 그 외, 'severe(심한)', 'contaminated(오염된)' 등을 통해 과거 환경오염에 따른 어획 감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scary(무서운)', 'severe(심한)'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느꼈던 두려운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much(많은)'(173), 'like(같은)'(85), 'big(크다)'(51) 등의 경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거나 흔재되어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해방에 대한 감정이 담긴 'good(좋은)'이 나타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marvelous(굉장한)', 'important(중요한)', 'famous(유명한)' 등 당시 전쟁의 주요 사건과 전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등장하였다.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어려

움을 나타내는 'difficult(어려운)', 'poor(가난한)', 'hungry(배고픈)', 'hard(힘든)', 'shabby(허름한)' 등도 등장하였다. 이는 당시 장항 내 전반적인 식량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1956년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를 살펴보면 'famous(유명한)', 'prosperous(번성한)', 'vigorous(활발한)', 'developed(발전한)'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당시 장항의 산업화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분위기를 더 좋게 생각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huge(커다란)', 'wide(넓은)', 'enormous(어마어마한)', 'only(유일한)', 'great(대단한)' 등으로 산업경관의 주요 특징을 표현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산업 노동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표현으로는 'hard(어려운)', 'hungry(배고픈)', 'hard(힘든)' 등이 다수 등장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0~80년대로 넘어가며 'fine(괜찮은)', 'good(좋은)' 등이 등장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외, 'natural(자연스러운)'은 장항 내 산업화의 쇠퇴에 대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었고, 'severe(심한)', 'contaminated(오염된)' 등이 출현하는데, 이는 당시 제련소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었다.

반면, 80년대 이후에는 앞서와 달리 'failed(망한)', 'lag(낙후된)', 'inferior(못한)', 'gloomy(막막한)', 'unhappy(불행한)' 등의 부정적인 형용사가 다수 출현하였다. 산업화가 쇠퇴하며 장항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내용의 비중에 비해 'contaminated(오염된)'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200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반화되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plentiful(풍부한)', 'good(좋은)', 'fine(괜찮은)', 'growing(커지는)' 등 긍정적인 형용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탈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용어와는 상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Table 2. Changing of Janghang's industrial landscape seeing through adjectives

Period classification	Classified adjectives
1920~1945 (Japanese colonial era)	good(20), developed(15)**, prosperous(11), marvelous(11), high(10), wide(10), old(9), hungry(7), famous(7), straight(7), near(6), flourishing(6), similar(6), vibrant(4), vigorous(4), scary(4), dangerous(3), important(3), severe(3), tremendous(4), only(5), plentiful(3), poor(3), gorgeous(3), new(3), sunny(3), contaminated(3)** * 'much, like, big, inferior, small, childish etc.' are excluded
1945(after liberation)~ mid-1950s	difficult(4), good(3), poor(2), better(2), hungry(2), famous(2), important(2), hard(2), marvelous(2), shabby(2) * 'much, big, like, etc.' are excluded
Mid-1950s~ early 1980s	difficult(18), good(16), famous(15), prosperous(13), vigorous(13), developed(7)**, severe(8), hard(7), contaminated(6)**, huge(6), old(6), tremendous(6), wide(5), enormous(5), natural(5), only(5), great(4), important(4), sizeable(3), fine(3), hungry(3) * 'much, like, childish, inferior etc.' are excluded
After early 1980s~ present	failed(7), good(7), contaminated(7)**, lag(5), inferior(4), unhappy(3), plentiful(3), growing(2), fine(2), gloomy(2) * 'much, big etc.' are excluded

* General meaning and multisense words are excluded for rational interpretation.

** The words explaining about situation are included, even if it does not be classified as adjective.

토대로 살펴보면, 장항이라는 지역의 상황과 달리 국가 전반적인 상황과 개인의 삶은 과거에 비해 풍요로워졌음을 구술하고 있었다.

이처럼 인터뷰 대상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항 근대 산업경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와 1956~8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산업화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지만, 해방 이후와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쟁의 이미지로 전환되었고, 80년대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산업화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며, 특히 2000년대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이미지가 중첩되며 가속화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과거 장항 근대 산업경관은 산업발전의 상징으로만 인식되었지만,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장항의 이미지는 '산업화의 상징'과 더불어 '오염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2. 장소기억 속 산업경관의 층위와 구조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을 이용한 경관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화된 이미지를 층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데 있다 (Park, 2013b).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기별로 구분한 형용사를 다시 경관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층위를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층위는 3개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인터뷰 내용과 과정, 추출한 형용사 특성을 토대로 연구자의 해석에 의해 이뤄졌다. 그 결과, 장항 근대 산업화 과정의 전반 특징을 드러내는 전반적 '도시 이미지', 근대 산업화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 '산업화 이미지' 그리고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중 전반적 '도시 이미지'와 특징적 '산업화 이미지'는 도시와 국가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인 반면, 삶의 '개인적 이미지'는 각 개인들의 사적인 집단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다시 그 성격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층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장항의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관이미지는 일상경관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함께 담겨 있었다. 이는 Jackson(1984), Teo et al.(2004), Hwang(2011)의 지적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일상경관은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지 않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일상경관의 일부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짐을 보여주고 있었다.

층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근대 산업화 초기 번성했던 장항, 즉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적 삶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반대로 8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개인적 삶에 대한 이미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즉, 국가와 지역의 산업발전과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문제는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은 발전했지만, 개인의 과거는 불행했으며, 지역은 쇠퇴하였지만, 개인의 삶은 보다 나아졌음을 의미한다.

3. 기억의 왜곡, 왜곡된 경관 인식

앞서의 연구 결과와 코딩된 인터뷰 자료를 추적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산업화 시기, 특히 일제강점기 산업화시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주로 하였고, 이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과 과정에서 살펴보면 그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왜정시대(가)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장항이 발전했을 거야.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 보면 (도로가) 반듯하지? 왜정시대 만든 그대로야." 이 구술문과 그 외 구술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장항이 주로 일제강점기에 발전했으며, 그 시기가 조금만 더 이어졌다면 장항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증거로서 '도로⁵⁾'를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정시대(가) 조금만 더 길어졌으면, 장항이 발전했을 거야.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 보면 (도로가) 반듯하지? 왜정시대 만든 그대로야. 깃발을 때릴때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도시계획을 했어. 군산은 지금도 가면 중앙로 이런 것이 구부러져 있지만, 장항은 반듯반듯해. 일본사람들이 계획도시를 만든 거야."

김○○, 70세, 공무원, 2012.04.30.

"일본사람들이 쌀을 가져가기 위한 항구를 만들었어[일제강점기]. 장항을, 장항항이 국제항[1960년대]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한 몇 년 가량 6.25 때까지만 해도 잘 나갔어요[왜곡된 기억]. 그 이후부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장항제련소가 한참 번성할 때에는 장항의 전성시대였어요. 장항에 당시 5일장이 있었어요. 장항제련소에 급료가 나오면 시장 쌀값이 변동이 되었어요. 그때 인구가 한 5만 가까이 되었어요[1960~80년대]."

방○○, 83세, 금융업, 2012.03.21.

"일제 강점기가 훨씬 번성했지. 일제 말기 그때가 더 번성했지. 그때가 최고로 동 같은 걸 때가지고 군사용으로 쓸려고 최선을 다 할 때야. -중략 (일제강점기에는 날품 노동자이고, 5~60년대 이후에는 관리직도 하고, 그럼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요?) 당연하지. 훨씬 많이 벌지. (그럼 지역주민들은 일제강점기보다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왜정 때보다는 해방되어서 훨씬 좋았지."

김○○, 80세, 향만노조, 2012.11.05.

이를 해석해 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발전'했던 장항의 이미지를, 가시적 경관 요소인 '도로'를 중심으로 기억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역주민이 기억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산업화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으며, 주민들이 설명하는 발전했다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 1960~80년대 자생적 산업화⁶⁾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많은 경우, 자생적 산업화의 발전했던 모습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경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지역주민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관의 인식과 이미지의 상징화 과정에서 특정 이유에서 이미지의 일부가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를 인터뷰 과정과 내용에서 살펴보면, 대표적 장항의 산업시설인 장항제련소, 도로, 장항항, 장항선과 미곡창고들이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인터뷰 대상자들은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기억의 장소(place of memory), 특히 근대적 인프라가 건설되고 형성된 시기인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경관을 기억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기억은 가시적 경관 요소가 등장했던 일제강점기로 회귀하며, 경관을 인식하고 기억함으로써 왜곡된 인식을 보여 주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Figure 3에서 드러난 경관에 대한 인식의 일부가 왜곡되어 표현된 것임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 산업경관에 대해서 묘사되었던 형용사의 일부는, 사실 1960~80년대

자생적 산업화를 설명하는 인자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관이 사실 일정한 이유와 힘에 의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왜곡된 경관을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Yeoh(1992)의 연구에서는 경관을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면, 장항의 사례에서는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적 패러다임과 가시적 경관 요소인 근대적 산업 인프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문화경관 연구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장소기억 개념에 기초하여 지역주민의 장소기억을 인터뷰로 추출하였고, 그 속에 담겨있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장항 근대 산업경관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형용사를 범주화하지 않아, 보다 자발적이고 폭넓은 형용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인터뷰 과정을 통해 보다 미시적이고 계보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장항 근대 산업경관은 시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고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식민지 산업화와 자생적 산업화 시기에는 도시 이미지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탈산업화가 진행되며 과거 산업경관의 이미지는 급속히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 또한 점차 흐릿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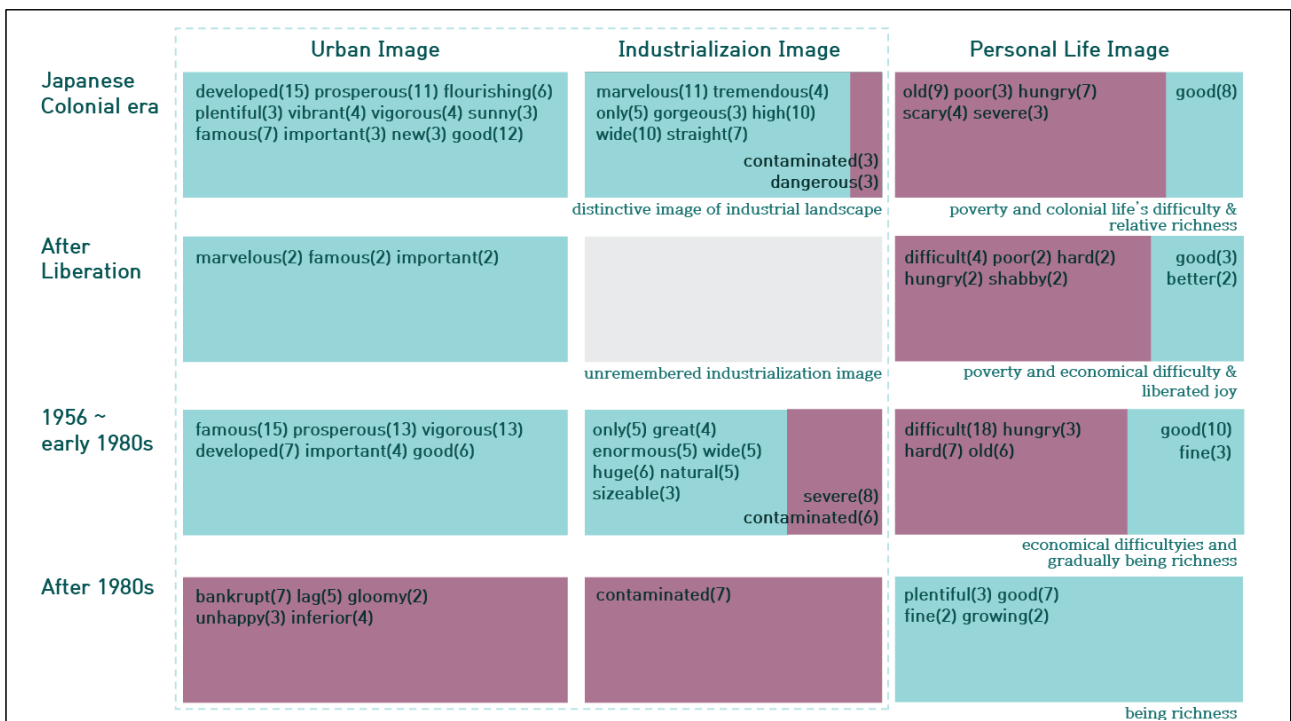


Figure 3. The layer and structure of Janghang's industrial landscape

Legend: ■ Positive Image ■ Negative Image

장항 근대 산업경관은 시간의 층위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유형과 성격에 따라 층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층위의 구분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징화된 경관이미지와 소외된 경관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의 기억과 이미지는 비록 집단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경관에는 투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관의 일부는 자연스레 소외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상징화된 이미지와 더불어, 기억의 병치(juxtaposition of memories)를 통해 상실되거나 소외된 기억과 가치를 돌이켜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장항을 비롯한 종로구 피맛골, 부산 40계단, 제주 43 사건, 용산미군기지 등의 역사경관 보전과 환경 설계에 있어, 길으로 드러난 상징적 이미지와 건조물뿐만 아니라, 그 속 담겨진 수많은 계층의 기억, 특히 하위계층에 속하는 노동자, 피난민, 지역주민의 기억과 장소의 흔적을 읽고 보전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고 통합성 있는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화에 있어, 녹지축 조성과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붉은 벽돌 건물 보전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주체(군인과 군무원, 주변의 화가와 상점주인, 주민, 성노동자 등)들의 기억과 기억의 장소들을 읽고 재구성한다면, 조경가를 비롯한 환경계획가들은 보다 풍성한 계획인자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소외된 가치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된 형용사와 그 형용사가 지시한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관 이미지의 일부는 사실 왜곡되거나, 강조되거나 또는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소기억과 형용사를 활용한 경관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설문조사와 내용해석에서는 밝혀낼 수 없었던 경관의 왜곡된 지점과 이유를 계보적으로 살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장소기억 개념과 형용사를 결합한 초기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산업화 과정을 경험한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주체 간의 차이를 드러내거나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살펴보면, 집단화된 기억으로 인해 산업화를 경험하지 않은 주체, 즉 탈산업화 시기에 태어난 젊은 계층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시작은 형용사를 위해 진행한 연구가 아니었기에 추출한 형용사의 빈도가 인터뷰 진행 횟수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인터뷰 질문 과정과 질문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록 등장한 형용사의 수는 적었지만 형용사의 설명력은 연구자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높았으며, 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더불어 인터뷰의 경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장소기억과 형용사를 결합한 연구는 독자적인 연구보다는 주관적인 장소와 경관 해석의 보완적 근거로 적용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장소기억과 형용사를 결합한 연구는 경관의 형성 구조와 계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녹취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고급 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코딩을 할 경우, 보다 쉽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형용사의 설명력이 높기 때문에, 향후 블로그, 뉴스 등의 인터넷 빅데이터 등으로 확장한다면 보다 다양한 경관 연구로 확장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 주 1. 비록 장항에는 거주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서천읍)에 거주하여 학교(농업전수학교), 직장(교사) 생활을 하였으며-지역주민의 추천으로 선택한 인터뷰 대상자임. 특히 지역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며, 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구술함.
- 주 2. 공동질문 예시(장항은 어떤 곳인가요? 장항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항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시기별 질문 예시(어릴 적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어릴 적 살던 동네에 대해서 기억 남는 것이 있나요? 어릴 적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나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세요? 일을 마치신 후, 저녁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잘 가는 곳이나 기억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가설지향적·대립형 질문 예시(장항제련소는 지역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제강점기에 왜 장항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세요? 장항이 근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근대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 3. KrKwic(Korean Key Word In Context)는 한국어 메시지의 내용분석을 위하여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사회 네트워크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특정 단어와 특정 단어 사이의 의미가 달라짐을 주목한다. 메시지는 상징(symbol) 또는 인지(cognitive) 시스템으로 간주되어, 내용분석에서 핵심 단어 간에 의미론적 연관(semantic association)을 밝혀낼 수 있다(Park and Leydesdorff, 2004).
- 주 4. 선택된 30대의 경우, 아버지가까 장항제련소 노동자로 제련소 사택단지에서 거주하여 장항 산업화에 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참고적으로 10~20대의 경우는 대부분 장항 산업화에 대한 기억을 거의 간직하고 있지 않았으며, 30대의 경우도 대부분 파편화되거나, 부분적인 기억만을 가지고 있었다.
- 주 5. 도로 외에도 장항제련소, 장항항, 황금, 미곡창고, 상수도, 통근버스 등을 언급하였다.
- 주 6. 일제강점기 장항제련소에서는 1936년을 시작으로 1940~41년 사이 산업생산의 최정점이었고, 이후 미국의 신통상조약 파기로 급격히 쇠퇴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940년 금 150kg, 은 1ton, 동 150ton을 생산하였다. 반면, 시설이 대부분 목조로 건설되어 1950년대에는 이미 시설이 낙후되었고, 이에 1950년대 중반, 1960년대 초, 1970년대 중반 대대적으로 시설을 근대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증설하였다. 이후 1979년 기준 금 636kg, 은 52ton, 동 38,000ton이 생산되었다. 1950년대 이후 자생적 산업화 시기가 더욱 산업화가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LG metal, 2006; Park, 2007).

References

1. Assmann, J.(1992) Das Kulturelle Gedächtnis: Schrift, Erinnerung und Politische Identität in frühen Hochkulturen. Munich: Verlag C.H. Beck.
2. Ban, Y. U., T. H. Lee., J. I. Baek, and M. A. Kim.(2012) Selecting representative landscape adjectives in accordance with landscape units and space typ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15(2): 95-101.
3. Bender, B.(2002) Time and landscape. Current Anthropology 43: 103-112.
4. Cosgrove, D.(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London:

